

丁玲의 <아마오 아가씨(阿毛姑娘)>에 대한 소고

崔 銀 晶*

<目 次>

I. 들어가면서	IV. 농촌여성의 옷을 입은 '소피'형 여성
II. 1920년대 농촌여성형상 속의 아마오	V. 나오면서
III. 아마오의 '환상': 도시발견의 의미	

I. 들어가면서

<아마오 아가씨>(1928년 7월)를 발표하던 무렵 丁玲은 이미 문단의 많은 주목을 끌고 있던 신인작가였다. “고요한 문단에 폭탄 하나가 투하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에 깜짝 놀랐다.”¹⁾ 주지하다시피, 이는 <아마오 아가씨>의 바로 앞에 발표한 <소피여사의 일기(莎菲女士的日記)>(1928년 2월)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1927년 12월 발표한 처녀작 <멍커(夢珂)>부터 <아마오 아가씨>보다 조금 늦게 발표된 <여름방학 중에(暑假中)>(1928년 8월)이르기까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연달아 발표한 작품들은 당시 문단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丁玲의 재능은 소위 “모던 걸”의 묘사에 있었다. “일종의 ‘세기말’적인 이상(異常)심리가 아주 강한 이른바 ‘근대여성’의 모습”²⁾이 동시대 다른 여성작가와 丁玲을 구분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조교수

1) 毅眞, <丁玲女士>, 袁良駿編, 《丁玲研究資料》(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2), 223쪽.

지어 주는 독특성이었다. 때문에 초기³⁾ 작품에 대한 평가는 ‘5·4’ 퇴조기 지식여성의 내면을 꿰뚫히게 그렸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자연, 농촌여성을 등장인물로 내세운 <아마오 아가씨>는 이 시기 丁玲의 일관적인 작품 세계에서 비껴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1930년대 농촌제재 소설과 같은 범주에서 읽히지도 않았다. 좌편향 이데올로기에서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그녀의 1930년대 창작 흐름과 맞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처음 발표되었을 때부터 이 작품은 단지 丁玲의 첫 번째 단편집인 《어둠 속에서(在黑暗中)》에 실린 작품 중 하나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작품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바, 주로 아마오의 비극적인 죽음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때 두 가지 상반된 견해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자본주의 물질에 대한 허황한 욕망이 아마오를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래서 상층사회(도시)의 삶을 부러워하여 자신의 낮은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락한 수단을 써서 운명과 싸우고자 하였으나 결국 우울한 상태로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⁴⁾고 분석한다. 요컨대, 아마오는 ‘도시’(물질)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 때문에 자멸하고 만 농촌여성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허황된 환상이라고 치부되었던 아마오의 욕망을 여성으로서 각성한 표지라고 보고 아마오의 비극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관점이다. 張大雷의 경우 한 농촌여성이 동물과도 같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지만 사회적 관습과 세력이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난 비극으로 본다.⁵⁾ 여자 노예에서 여인으로 각성했다

2) 錢謙吾, <丁玲>, 袁良駿編, 같은 책, 226쪽.

3) 초기는 1927년에서 1929년의 창작단계를 지칭한다. 丁玲의 창작생애는 보통 1927~1929년, 1930~1935년, 1936년 이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盛英主編, 《二十世紀中國女性文學史·上》(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5), 209-217쪽 참조.

4) 宗謙, 尙俠, <丁玲早期的生活和創作>, 袁良駿編, 위의 책, 480쪽.

5) <論丁玲早期創作的探索女性形象>(丁玲創作討論會論文). 宋建元, 《丁玲評傳》

고 보는 陳智慧의 견해⁶⁾가 이와 동일선상에 있다. 鄒午蓉도 그녀를 “현대 도시문명과 농업문명의 충돌 속에서 탄생한 최초의 각성한 하층부녀”⁷⁾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때, 아마오의 욕망에서 각성한 농촌여성의 일면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녀의 비극이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아마오가 걸쳐 있는 공간적 배경-도시와 농촌-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분석하기도 한다. 王軼은 아마오의 죽음이 농촌이 상징하는 봉건주의적인 문화와 도시가 상징하는 자산계급 문화에 의해 양산되었다고 본다.⁸⁾ 그러한 가운데, 아마오를 1920년대 말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방황하는 작가 丁玲의 고민이 투영된 형상이라고 보는 翟永明과 高小弘의 연구⁹⁾는 새롭다고 하겠다. 그 외에, 비교문학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한 논문도 있다. 이는 주로 두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丁玲이 창출해낸 비(非) 지식인여성형상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이들의 상이점을 찾고, 나아가 시대적 문화적 배경과 연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일한 인물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외국문학과와의 비교 고찰로, <보바리 부인>과 비교연구가 주를 이룬다.¹⁰⁾

이들을 종합해 보면, 초창기 대체로 계급적인 각도에서 출발하여 아마오를 자산계급적인 물질적 욕망에 물든 농촌여성으로 보던 관점이 80년대 부터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각성한 농촌여성으로 보는 시각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이 두 가지 견해에서 비껴나 작품을 보려는 시도들이 드문드문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9), 76쪽에서 재인용.

- 6) <欲望之花的凋落-「阿毛姑娘」解讀>, 《湘南學院學報》(2005.1).
- 7) 《丁玲創作論》(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4), 40쪽.
- 8) <「阿毛姑娘」: 苦楚的文化悲劇>, 《河北師範大學學報》(2004.3).
- 9) <城鄉抉擇的焦慮及其想象性解決-丁玲「阿毛姑娘」再解讀>, 《貴州師範大學學報》(2005.5).
- 10) 王明麗, <不同時空中靈魂的悲劇-「阿毛姑娘」與「包法利夫人」比較>, 《西北師大學報》(2002.4).

은 농촌여성이라는 아마오의 ‘드러나는’ 신분적 특징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마오의 신분적인 특징은 정치적 기준 또는 여성주의를 고스란히, 심지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기준이 모든 것의 미덕이 되던 때 아마오는 반(反)계급적인 이상을 품은 농촌여성이 되는 것이며, 여성주의에 의해 중국현대여성서사(丁玲읽기를 포함한)가 재해석되는 시점에서는 각성한 농촌여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담보한 상태로 이 작품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

하지만, <아마오 아가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읽어보아야 할 필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첫째, 아마오란 인물에 대한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丁玲의 초기 소설은 사상성과 정치성이 최대한 배제되어, 丁玲의 창작 동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초기 작품으로서 <아마오 아가씨> 또한 초창기 丁玲의 창작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연구는 <소피여사의 일기>에 모아져 있고, 그 내용도 소피형 인물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그 결과, <아마오 아가씨>는 이 시기 丁玲 창작에서 상당히 독특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때로는 주인공인 아마오가 소피형 인물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피형 인물과는 다른 층위에 놓여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일면 아마오가 ‘아마오’ 자체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여겨진다. 따라서 아마오란 인물 자체에서 출발하여 이 작품을 다시 읽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아마오란 인물 자체의 독특성을 파악하고, 이 작품에 담긴 丁玲의 문제의식을 탐구해 봐야 하는 것이다. 둘째, 지금 우리가 수많은 ‘아마오’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소위 ‘打工妹’가 그들이다.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들어와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들 농촌 아가씨들의

11) 中國知網에서 1980년대 이후 이 작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검색한 결과 13편에 그쳤다.(2010년 10월 기준) 이들 논문 대다수는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이 작품을 해독하고 있다.

모습 속에 ‘도시’를 욕망하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아마오’의 그림자가 겹쳐진다. <아마오 아가씨>에 새삼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도 아마오의 비극을 재현하고 있을 ‘아마오’들을 위해 그녀의 욕망과 환상, 죽음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사유해봐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아마오의 욕망과 환상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개의 공간에 주목하여, <아마오 아가씨>를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공간이동에 따른 그녀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아마오의 비전형성, 그녀의 욕망과 환상 등을 다시 사유해 보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소설에서 공간은 장소나 배경 등 단순히 자연 공간의 재현으로서뿐 아니라 인물 내적 세계의 반영 또는 인간이 세계에 대해 가지는 비전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왔다.¹²⁾ 따라서 공간구조와 의미를 고찰하는 일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 그 행위를 이해하는 작업이며 작품의 주제 파악에도 큰 도움을 준다.¹³⁾ 특히, 丁玲의 초기 작품은 인물의 공간이동에 따른 내적 변화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¹⁴⁾ <아마오 아가씨>도 예외가 아닌 바, (고향)떠남과 입성의 서사 구조는 이 작품을 지탱하는 큰 줄기이다. 때문에 등장인물의 공간인식은 그녀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편이 될 것이다. 또한, 소설 속에서 공간이 작가로서든 인물로서든 인간이 그를 에워싼 세계와 맺게 되는 기본적인 관계를 표현 한다¹⁵⁾는 점에서, 작품에 드러난 공간의 묘사를 통해 丁玲의 세계 인식을 규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여성형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丁玲의 초기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

12) 피에르 프랑카스텔, 김화영 역, <공간의 탄생>, 《해외문예》(1980년 봄호), 124쪽. 황도경, <소설공간과 ‘집’의 시학>, 《현대소설연구》 17집(2002)에서 재인용.

13) 김종건, <소설의 공간구조가 지닌 의미>, 《대구어문논총》 13집(1995), 250쪽.

14) <멍커>는 떠남-입성의 서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피여사의 일기>와 <여름방학 중에>도 고향을 떠나 도시에 진입한 지식여성들의 세계인식과 자아인식을 다루고 있다. 떠남과 입성의 과정, 입성 이후는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지식여성들의 자아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15) 김화영 편역, 《소설이란 무엇인가》(서울: 문학사상사, 1986), 183쪽.

으리라 기대한다.

II. 1920년대 농촌여성형상 속의 아마오

아마오의 가장 큰 특징은 농촌여성으로서 그녀의 비전형성이다. 이것은 대체로 <아마오 아가씨>에 대한 한계로 인식되어졌다. 여기에는 丁玲이 밝힌 자신의 창작태도로부터 연유한 선입견이 상당 부분 작용했으리라 본다. 丁玲은 일찍이 “내가 보고 경험한 환경은 아주 제한적이다. 나는 단지 지식인 계급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의 삶에는 경험이 없었다 (중략). 주인공은 보통 여자였는데 이는 내 자신이 여자였기 때문”¹⁶⁾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소자산계급과 여성이라는 두 요소에 치중하게 된 이유를 밝힌 적이 있다. 이는 지식여성인 작가가 농촌여성을 등장인물로 삼았을 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또한, 丁玲은 소설을 쓸 때마다 스스로 소설 속의 인물이 되어 특정한 상황 하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다 생각해 본 연후에 비로소 펜을 든다고 했다.¹⁷⁾ 이러한 그녀의 창작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지식여성’인 작가가 순수하게 당대 ‘농촌여성’으로서 아마오를 드러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창작의 임무라고 본 “시대의 영혼”¹⁸⁾을 충분하게 담아낼 수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혹자는 丁玲이 묘사해낸 농민형상을 분류하면서 아마오가 이른바 “가짜농민”¹⁹⁾의 범주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가짜농민’으로까지 규정된 아마오의 비전형성이 이 작품의 한계일 수 있겠으나, 이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마오의 비전형성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먼

16) <我的創作經驗>, 《丁玲文集》 5卷(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4), 383쪽.

17) 같은 책, 384쪽.

18) <生活·創作·時代靈魂>, 《丁玲文集》 6卷(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4), 273쪽.

19) 王燎熒, <「太陽照在桑乾河上」究竟是什麼樣的作品>, 袁良駿編, 앞의 책, 424쪽.

저 동시대 여타 농촌여성형상들 속에서 그녀의 독특성을 찾아보도록 하자.

1920년대 중국소설에서 농촌여성을 형상화한 작품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런데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서사 속에 등장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廢名과 같은 향토서정파는 도시에 물들지 않은 농촌여성의 건강함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통해 농촌사회의 순박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읽어냈다. 이러한 경향은 2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나 30년대에 중요한 한 줄기를 이룬다. 그런가 하면 향토사실파나 문학연구회 작가들은 주로 농촌 여성의 고단한 삶을 묘사하였다. 이들은 구중국의 표상으로서 농촌을 문제화하면서, 여성문제를 그것과 결합시켜 봉건중법사회의 폐단을 집중적으로 드러낸다.²⁰⁾ 이때 주로 농촌여성의 무지몽매함과 그들의 비인간적인 생존 현실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를 통해 계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봉건관념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1920년대 소설의 큰 틀인 봉건적 관념과 계몽적 지식인의 대립 구도²¹⁾에서 계몽적 지식인에게 당위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였던 셈이다. 魯迅이 창출한 祥林嫂가 가장 전형적인 형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형상은 20년대 향토사실파의 작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²⁾ 구중국의 낙후와 봉건제도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장(場)으로서 농촌여성의 모습은 20년대 여성 서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시기 여성서사는 주로 지식인 여성들의 자아 발견에 천착했기에 농촌여성의 모습은 흔치 않다. 冰心の <최후의 안식(最後的安息)>, 石評梅의 <동씨 아주머니(董嫂)> 정도에서 농촌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농촌에 만연한 민며느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들 작품은 봉건적인 습속이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한 여성 현실의 비극을 드러낸다. 중국현대여성서사에서 농촌여성의 지난한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은 20년대 후반 좌익계열 작가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이루어져가다가, 30년대 蕭紅을 위시하여 羅洪, 羅淑 등 농촌 출신 여성작가들이 등장하면서

20) 楊義, 《中國現代小說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3), 419쪽.

21) 김미정, <丁玲 문학의 진폭(1)>, 《중국어문학》 51집(2008.6), 342쪽.

22) 楊義, 앞의 책.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붓끝에서 농촌여성의 고통스러운 생존현실은 계급문제와 연관되어 그 시대 사회적정치적인 담론을 반영하였다. ‘모성’이 담보하고 있는 강인함, 끈질긴 생명력 등이 농촌여성과 등치되어 이들의 긍정적인 품성을 체현하기도 했다.

이로 볼 때, 농촌여성형상에 20년대 중국지식인의 도시와 농촌에 대한 공간상상이 투영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도시가 상징하는 진보, 근대, 문명에 전망을 둔 계몽적 지식인들은 농촌을 그 계몽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장으로 농촌여성형상을 만들어낸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농촌여성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성의 타자인 여성이며, 여성 안에서도 지식여성의 타자로 중층적인 억압구조 속에 놓여 있는 까닭이다. 반면, 廢名과 같은 작가들은 도시의 악성(惡性)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농촌문명이 안고 있는 인간적이고 순박한 장점을 부각시킨다. 이때에도 순수하고 맑은 농촌여성형상은 그것을 재현하는 코드가 된다. 그런데 아마오는 이들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오가 20년대 의미화된 ‘농촌’과 ‘도시’의 대립적인 서사구조 속에서 어느 한쪽의 담지체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丁玲은 봉건적 중벌사회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지표나 농촌문명의 미(美)를 투영하기 위한 장으로 아마오라는 농촌여성을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丁玲이 아마오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농촌에서 도시로 온 농촌부녀자가 어떻게 자산계급 생활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 늘 좀 더 나은 삶만 생각하다가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여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쓴 것이다. 향주가 배경이다. 그 곳은 아주 변화한 곳으로, 국내외 여행객이 많이 찾아온다. 나는 그 곳에서 가난하고 힘겨운 수많은 하층민들을 보았다. 그들은 별다른 환상이 없었다. 단지 돈 몇 푼 있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아마오는 환상이 있었다.²³⁾

23) 莊鐘慶, 孫立川 整理, <丁玲同志答問錄>, 《新文學史料》(1991.3), 71쪽.

인용문을 보면, 丁玲이 그려내고자 했던 아마오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환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를 구분 짓는 요인이다.

아마오의 환상은 이웃 아낙네들의 입과 호수 너머 찬란한 불빛을 통해 비쳐진 ‘도시’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아마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도시는 “신화 속의 기이한 풍경”과 같아서 그녀는 감히 “추측할 도리가 없다”. (丁玲, <아마오 아가씨>, 135쪽) 이는 그녀가 도시를 현실세계와 완전히 별개인 어떤 것으로 보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녀가 도시라는 공간을 자신이 처한 세상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첫 번째 도시여행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도시를 아주 신기한 어떤 곳이라고 상상하고 있기에, 그녀는 심지어 “가죽코트를 입고 붉은 다리를 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는 부인네들이 그녀와 같은 여자라는 걸 알지 못했다. 보기 좋게 일부러 꾸며 놓은, 가게를 장식하는 것과 같은 물건이라고 생각했다.”(138쪽) 그리고 그녀들의 모습이 마치 “신의 손을 거쳐 잘 놓아둔 것”(138쪽) 같았다고 표현한다. 그녀가 본 도시는 화려함과 부요함으로 요약되고, 아마오는 여기에 자신의 상상을 덧붙여 간다. 그 과정에서 도시는 점점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을에 놀러온 도시 여인이 끼고 있는 장갑조차도 “일종의 신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더할 나위 없이 진귀한 물건”(143쪽)으로 본다. 아마오가 그 도시 여인을 이른바 탈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마오의 눈을 거쳐 묘사된 도시는 “神”, “神奇”, “神仙”, “仙境”, “美境”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 형상화된다. 이는 곧 아마오가 보는 도시는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임을 설명한다. 여기에 동시대 여타 농촌여성형상과 아마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상술했듯, 동시대 농촌여성형상은 종법제도나 봉건적인 가치관의 부당함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목소리가 거세된 피동적인 존재로 그려졌을 뿐이다. 그런데, 아마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도시는, 그것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지의 여부를 논하기 이전

에,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마오의 환상은 아마오가 자신의 목소리를 가졌음을 설명하는 또 다른 지표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 삶에 대한 불만족, 즉 '다른' 삶에 대한 희구이다. 丁玲은 일찍이 중국 부녀의 삶에 대해 “소나 양이나 개만도 못하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그녀들은 마치 소처럼 일하고 양처럼 유순하며 개처럼 충실하다. 그러나 그 대우는 소나 양만도 못하고 더더욱 개만도 못하다. 인간의 종일뿐 아니라 가축의 종이다.”²⁴⁾ 다른 삶으로의 변화에 대한 아마오의 열망은 바로 이러한 중국부녀의 삶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그녀가 인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은 그녀가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인간답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생활을 “도시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며 변화를 바라게 된 것이다.²⁵⁾ 아마오의 환상은 바로 이러한 그녀의 목소리가 투영된 것이다.

요컨대 아마오는 丁玲이 무지하고 순진한 한 여인의 바람, 욕망에 대한 귀 기울임의 결과로 재현된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의미화된 '농촌'의 가치체로 작용했던 1920년대 농촌여성형상에서 비껴나, '그녀' 자체로 문학 속에 형상화된 존재인 것이다. 여기가 아마오의 비전 형성이 구성되는 출발점인 것이다.

III. 아마오의 '환상': 도시발견의 의미

사실, 바로 앞서 발표한 <멍커>나 <소피여사의 일기>에 비해 <아마오 아가씨>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시와 농촌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나 묘사

24) <慶祝《時代婦女》發刊>, 《丁玲文集》 6卷, 669쪽.

25) 鄒午蓉, 앞의 책, 39쪽.

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아마오가 도시를 알게 된 후 보이는 내면의 변화는 이 두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준다. 이는 ‘집’에 대한 인식을 통해 나타난다. 도시를 알기 전, 아마오에게 있어 ‘집’은 아주 즐거운 공간이다. “대체로 그녀는 행복한 편이었다. 게다가 그녀도 정말로 즐겁다고 느꼈다.”(141쪽) 그러나 도시를 알게 된 후, 이 ‘집’은 그녀를 억누르는 공간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녀는 집안에 있지 못하고 항상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집밖 공터가 그녀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바로 그녀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웃 아녀자들로부터 도시에 대해 듣고 지나가는 도시 여인들을 통해 도시를 본다. 공터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녀가 ‘집’의 안과 밖의 차이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선망하는 도시 사람들로 부터 도시에서의 일자리를 제안 받고 그들을 따라가고자 하다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얻어맞고 질시를 당한다. 그녀가 그를 따라가고자 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여긴 것이다. 게다가 돈도 생긴다. 아마오에게 있어 이는 곧 그녀 자신도 자신이 본 도시 여인들처럼 사랑받고 사랑하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집안-그녀의 남편 샤오얼(小二)에 대해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샤오얼은 그녀를 육체적으로 욕망하지만, 이것이 그녀에게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은 주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럴까. 샤오얼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아마오를 판단한다. 아마오의 욕망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다. 때문에 아마오가 그녀의 욕망을 표현할 때 그는 그녀를 “창부”라고 밀쳐버리고 그녀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아마오에게 있어 도시발견이란 사랑에 대한 갈망과 행복한 삶에 대한 바람으로 요약됨을 말해준다. 주지하다시피, 도시선망은 아마오뿐 아니라 그녀 이웃들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웃들의 도시선망은 물질선망에 다름 아니다. 이에 반해, 아마오의 도시인식은 물질적인 부요함과 화려함에 대한 깨임으로부터 인간, 한 여인의 행복에 대한 깨임으로 전환되면서 인간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오는 단순히 물욕을 상징하는 부호로 남지 않았던 것이다.²⁶⁾ 바로 여기에 그녀와 여타 다른 농촌 사람들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녀가 바라는 ‘도시’는 물질을 넘어서 사랑과 행복의 담지체인 것이다. 도시에서 온 여인들은 아마오가 바라는 도시가 가시화된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상냥하고 사랑스럽다. 그 남편들도 다정하다. 따라서 그녀가 상상하는 도시는 곧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여인, 다정한 남편과 등치된다. 동시에, 그녀들이 보여주는 행복한 삶과 연동되어 아마오로 하여금 도시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그녀가 도시를 발견하는 과정은 곧 인간으로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여성으로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무엇보다도, 아마오의 도시발견에 담긴 자아각성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인간 삶의 비극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오에게 있어 도시는 단순한 거주지로서 공간이 아닌, 인간 삶의 이상향이다. 그녀의 시택 근처 도시 남녀가 세 든 집이 곧 아마오가 상상하는 도시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오는 틈만 나면 그곳 근처로 달려가고, 밤에는 집밖에서 창문 커튼 너머로 보이는 그 집을 상상한다. 그러던 중 그녀는 도시의 또 다른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그 소리, 그 몹시도 슬픈 소리가 또 들려왔다. 그것은 그녀가 예전 어느 날 밤에 들었던 소리로, 그녀의 오른쪽 이웃에 사는 여자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였다. 그 소리는 현 위에서 그렇게도 높고 격앙되었으면서 동시에 아주 감미롭고 슬펐다. 아마오는 또 울고 싶었다.(중략) 환한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그 여자를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붉은 색 셔츠를 입고 짧은 머리는 산발한 채 손에 물건을 하나 들고서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대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물건에서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그 물건을 던져버렸고, 평 하는 소리만 들렸다. 여인도 고꾸라졌다. 한참 동안, 한참 동안, 또 적막이 흘렀다.(중략) 아마오는 맞은편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여인을 안고서 울고 싶었다. 그 여인은 일찍이 그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어찌나 사근사근하여 대하기가 좋았던지! 왜 그녀도 깊

26) 王軼, 앞의 논문, 80쪽.

은 밤에 혼자 그렇게 슬퍼하는 것일까. 그렇게도 많이 행복해보이지 않았
던가?(168쪽)

이 집의 밤, 이 집에 사는 도시여인이 보여주는 밤은 바로 도시의 이면이기도 하다. 아마오가 상상하는 도시의 실체를 암시하는 것이다. 밤에 발견한 도시에서 아마오는 인간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삶에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복은 타인이 보기에 그러한 것일 뿐,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의 이면을 통해 드러난 인간 삶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은 곧 그녀가 기대하는 인간 삶의 이상향이 무너졌음을 뜻한다. 그녀가 도시의 이면을 발견한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이처럼 아마오의 도시발견은 여성으로서 자기발견에서 나아가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인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그녀의 환상과 욕망은 행복한 삶에 대한 환상이며 그것에 대한 욕망이다. 아마오가 품은 환상과 욕망은 “예전부터 그래왔으니 그래야 한단 말입니까?”라는 “광인(魯迅, <광인일기(狂人日記)>)”의 물음을 떠올리게 한다. 도시를 알기 전, 아마오 또한 산골짜기에서 태어나 자란 여자들은 예전부터 이리 살아왔으니 이리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으면 그녀의 삶은 아마도 그녀의 시어머니, 그녀의 시댁 형님, 수많은 마을 아낙들과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마오는 그녀의 시어머니, 그녀의 시댁 형님, 마을 아낙들처럼 사는 것 외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다들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과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 찾기. 바로 이것이 바로 아마오가 도시를 발견하고 추구해가는 과정 밑에 숨겨진 의미인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녀의 비극이 타자성을 내면화한 여성의 비극을 연행한다는 점이다. 비록 그녀는 인간으로서 여성의 삶에 눈을 떴다고는 하지만, 그녀가 눈 뜬 인간으로서 여성의 삶이란 다정하고 잘생긴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산책하고 노래하고 책을 읽는 삶이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여성의 삶이며, 그녀가 상상하는 도시여성-행복한 도시여성의 삶이다. 이는 그 기댈 어깨를 찾지 못했을 때 그녀의 삶은 이미 비극을 향해 열려져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삶에 대한 아마오의 이러한 제한된 인식에서 타자성을 내면화한 여성의 전형적인 내면을 읽을 수 있다. 이로 보자면, 아마오의 비극은 타자화된 여성 앞에 놓인 비극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오의 자살이 단지 삶의 포기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고 있음은 분명하다. 처음 아마오는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살은 그녀가 절망 끝에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아마오는 살기를 원했고, 더 의미 있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죽음을 택한 것이다.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역설적으로 죽음-자살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부권제 사회가 여성에게 규정한 삶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²⁷⁾이라고 한다면, 죽음-자살은 사실 삶에 대한 욕망을 가장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현실을 바꿀 능력이 없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자기표현인 것이다.

IV. 농촌여성의 옷을 입은 ‘소피’형 여성

지금까지 아마오의 도시발견에 따른 내적 세계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그녀의 비전형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물론 도시에 대한 아마오의 시선을 따라온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아마오의 시선에 개입하고 있는 서술자의 시선이다. 달리 말하면, 아마오와 서술자라는 두 개의 시선을 통해 도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를 보는 서술자의 시선은 먼저 농촌에 대한 그의 시선을 통해 예들러 나타난다. 서술자는 농촌의 궁핍함과 고된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27) 林丹婭, 《當代中國女性文學史論》(廈門: 廈門大學出版社, 2003), 228쪽.

는 좀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아마오의 바람을 정당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 예컨대, 서술자의 눈에 비친 아마오의 고향집은 “궁핍하고 외진 산골”에 있는 “초가집”으로, 누추하기 짝이 없다. 그 안에서 그들의 생활은 “일 년 내내 힘들게 일을 해도 배불리 먹기 어려운” 삶이다.(150쪽) 이러한 묘사는 서술자가 아마오의 고향집이 상징하는 중국농촌과 그 곳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첫 번째 도시여행에서 돌아오는 아마오가 곧 집에 도착한다는 사실에 즐거워할 때, 그 옆 도시인의 “精緻”한 집과 비교하면서 이 집의 “間陋”를 부각시킨다. “그녀는 이 산골 짜기에서 오로지 그녀들 몇몇 집만이 낡은 나무판으로 만든 누추한 작은 기와집이며, 사방에는 또 수리해야 하는 오래되고 녹슨 양철판이 널려 있고, 집안 가득 일할 때부터 밥 먹고 잠자는 것에 이르기까지 낡았지만 버리기 아까운 그런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다는 것을 잊었다.”(140쪽) 이를 통해 아마오의 따뜻한 시선이 가져오는 집에 대한 상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즉, 서술자의 농촌상상은 이른바 초라함, 누추함, 빈곤 등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삶과 등치되는 ‘농촌’ 대신 ‘도시’를 갈망하는 아마오의 바람은 일면 정당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마오가 그것을 갈망하게 되자, 서술자는 오히려 도시에 대한 아마오의 상상을 “가없는 몽상”으로 치부한다. 뿐만 아니라, 서술자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로서의 도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서슴없이 비판의 날을 세운다. 그 초점은 도시여성의 삶에 대한 아마오의 잘못된 인식이다. 도시여성의 삶은 능력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는 삶, 속물적인 인간들 속에서 힘겹게 자기를 지켜가야만 하는 삶, 그래서 고독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삶이다. “만약 아마오가 그녀가 부러워하는 여자의 내적인 생활을 이해할 기회가 생겨서 그로부터 인류가 얼마나 천박하고 가련한지 알아챌 수 있다면, 그녀는 그녀의 그 생활 속 모든 것들에 아주 만족해할지도 모른다.”(153) 그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아마오가 헛된 망상을 하고 있다고, 그녀의 바람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식하게끔 이끌고 있는 것이다.²⁸⁾ 이때 서술자의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는 바, 아마오가 고향에서 보낸 나날들은 “힘들게 일해도 배

불리 먹지 못하는 삶'이 아닌 평화롭고 유유자적인 삶이 된다. 고향에서 아마오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충직하고 온후한 반면, 도시사람들은 가식적이고 허위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서술자는 “원시시대의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을 보존하고 있는 황야에서 일하고 먹는 성실한 여인의 삶도 불행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농촌여성의 삶을 긍정한다.(142쪽) 자연, 도시에 대한 아마오의 갈망은 안분지족하지 못하는 허영으로 남아 버릴 수밖에 없다. 이는 도시를 발견하기 이전과 이후의 아마오를 묘사하는 서술자의 시선에서도 그대로 읽혀진다. 서술자는 아마오가 “단순한 아이에서 생각이 많은 소녀로 변화했다”고 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그녀에 대해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손실”이라고 여긴다.(148쪽)

이로 볼 때, 아마오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가난한 농촌, 비인간적인 농촌여성의 생활에 서술자의 시선이 놓이게 되면 아마오의 도시 바람은 정당화 되고, 그녀는 각성한 농촌여성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농촌의 소박함, 인간적인 품성과 도시의 물질화가 대조를 이루면서 여기에 서술자의 시선이 닿으면 아마오의 욕망 또는 각성은 ‘환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서술자의 이러한 이중적인 시선이 아마오에게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오는 환상에 빠진 무지한 농촌 처자로 보이기도 하고, 각성한 농촌여성으로 보이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서술자가 등장인물과 자신을 점점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오의 도시발견이 도시와 농촌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단순한 비교로부터 인간 삶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아마오가 자신을 마을 사람

28) 독자가 이러한 서술자의 시선에 공감하게 되는 것은 신빙성 있는 서술자이기 때문이다. 신빙성 있는 서술자란 그 스토리 제시나 스토리에 대한 논평을 독자가 허구적 진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설명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서술자이다. 비신빙성의 근거는 서술자의 제한된 지식, 그의 개인적 연루관계, 문제성이 있는 가치 기준 등이다.(S. 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사학》(서울: 예림기획, 2003), 177쪽)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마오의 도시인식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도시체험이 전무한 등장인물 아마오보다 독자에게는 훨씬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들과 구분 짓는 데에서 구체화된다. 아마오의 도시인식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농촌, 즉 농촌 사람들에 대한 깨임이다. 그녀의 도시발견이 물질에 대한 깨임에서 인간 삶에 대한 깨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농촌에 대한 발견이다. 아마오가 발견한 농촌은 도시의 타자로서 자리하는 농촌이며, 도시인의 타자인 농촌사람들이다.²⁹⁾ 도시로 시집간 이웃집 셋째 언니에 대한 주변 아낙들의 태도를 보자. 마을 아낙들은 나이 많은 군관의 첩으로 가는 그녀를 비웃고, 딸을 돈에 팔아버렸다고 그녀의 부모를 욕한다. 그러나 그녀가 아주 달라진 모습으로 마을에 왔을 때 아주 부러워하면서 그녀를 추켜세운다. 도시인에게 방을 내준 진 아주머니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일순간 “귀한 손님”이 되고 사람들은 그녀를 홀대하지 못한다. 사람들의 질투와 선망의 기저에는 도시가 담보하는 물질이 있다. 때문에 이들은 도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비굴해지는 것이다. 아마오는 이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유쾌한다. “그녀는 집안 식구들이며 아짜오 아주머니 등과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자신도 그녀들과 같은 그런 계급에 속한 사람으로 확정지어 있다는 것을 더 절실히 이해하게 되고, 그녀들이 가진 수많은 저속한 점을 자주 깨닫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다.”(161쪽) 이는 인간으로서 자기에 눈뜬 아마오가 자신과는 ‘다른’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거부는 타자성을 내재화한 농촌사람들에 대한 아마오의 소극적인 비판인 것이다. 농촌사람들에 대한 아마오의 거리두기와 비판적인 시선은 도시의 물질성에 눈을 뜬 아마오에 대한 서술자의 거리두기와 비판적인 시선을 떠올리게 한다. 서술자와 아마오가 동일시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서술자와 아마오가 동일시를 이루게 되면서, 아마오는 농촌여성의 옷을 입은 ‘소피’형 인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소피’형 인물이란 혹자가 지적한 대로 아마오가 자신의 바람을 추구하고 좌절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마오의 내적 세계가 소피여사의 그것과

29) 王軼, 앞의 논문, 81쪽.

일백상통³⁰⁾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아마오 또한 丁玲 초기소설에서 나타나는 일관적인 문제의식의 선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즉, ‘소피’라는 그 인물형상에 담긴 작가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아마오를 농촌여성의 옷을 입은 ‘소피’로 명명한 것이다. <멍커>와 <소피여사의 일기> 에서 나타나고 있는 丁玲의 일관적인 문제의식은 근대적인 사회에서 개인과 여성의 현실에 대한 의문이었다.³¹⁾ 멍커와 소피여사와 아마오를 통해, 丁玲은 이에 대한 세 가지 대처방식을 보여준다. 동화되어 타락하거나(멍커), 떠나거나(소피),³²⁾ 자살하거나(아마오).

그렇다면, 丁玲은 아마오에게 왜 굳이 농촌여성이라는 옷을 입혔을까. 농촌여성이라는 아마오의 신분적인 특성은 그녀가 각성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반면 지식여성은 각성한 사람이다. 때문에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각성한 이후에 집중된다. 하지만 농촌여성으로서 아마오는 각성의 과정부터 그 이후까지를 그려낼 수 있다. 또한 지식여성이 갖는 개인자, 다른 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농촌여성인 아마오는 좀더 보편적이고 평범한 인간의 자아인식과 세계인식을 투영할 여지를 지닌다. 1920년대 여성서사가 각성한 지식여성의 삶에 치우친 결과, 그들만의 서사라는 한계를 안게 된 점을 떠올려 볼 때, 丁玲은 아마오에게 농촌여성의 옷을 입힘으로써 지식여성형상을 통해 드러낸 문제의식과 동일선상에 놓인, 심지어 더 확대된 문제의식을 반영하면서도 그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마오를 단순히 ‘소피’의 자매 또는 아류로 범주화하고 넘겨버릴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30) 鄒午蓉은 아마오를 “소피의 자매”라고 보았다. “阿毛是鄉村的莎菲, 尤其是她那執着的追求、不屈的抗爭, 與莎菲的精神相同.” 앞의 책, 40쪽.

31) 이에 대한 상세한 논술은 김미정, 앞의 논문, 343-345쪽.

32) 멍커는 ‘도시’와 타협하여 “순육감적인 사회로 계속해 들어가” 마침내 영화배우로 성공하게 되고, 소피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베이징을 떠난다.

V. 나오면서

丁玲의 말대로, 그녀가 형상화한 일련의 지식여성들은 시대적 전형성을 띤, 그 시대의 영혼이다. 이들 작품에서 우리는 또한 丁玲의 강한 여성의 식과 만나게 된다. 이에 비해, 아마오는 20년대 전형적인 농촌여성은 아니다. 인물의 전형성을 작품의 제일로 쳤던 丁玲의 창작 지향에 비추어 본다면, 그래서 아마오는 실패한 인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아마오란 인물의 특징이 된다.

그 특징은 아마오의 ‘환상’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 ‘환상’은 ‘도시’에 대한 추구이다. 이는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 도시가 의미하는 물질적인 부요함에 대한 추구만을 뜻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주어진 삶에 대한 아마오식의 물음이 담겨있다. 다들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 찾기. 이것이 바로 아마오가 도시를 발견하고 추구해가는 과정 밑에 숨겨진 의미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인간 삶의 이면에 자리한 비극-인간 삶의 존재론적인 비극을 깨닫게 된다.

이로 볼 때, 아마오는 丁玲이 무지하고 순진한 한 여인의 바람, 욕망에 대한 귀 기울임의 결과로 재현된 형상이라 할 수 있다. 丁玲은 아마오를 통해 한 평범한 인간이 자신에 눈 떠 가는 과정과 그 이후를 전경화 하여, 여성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인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단순히 한 농촌여성의 물질에 대한 욕망과 그로 인한 삶의 비극을 서술하고 있다고만 볼 수 없다. 이 안에 담긴 작가의 물음은 1920년대 말 丁玲이라는 한 여성작가의 고민만이 아닌, 근대화(도시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모순도 극복해야 했을 ‘5·4’ 지식인의 고민이기도 하다. 동시에, 급격한 도시화 물결을 타고 수많은 ‘아마오’들이 등장하고 있는 당대중국의 고민이기도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마오의

환상과 욕망, 그녀의 죽음에 담긴 의미를 다시 사유해 봐야 하는 이유이며, 아마오라는 한 “가짜 농민” 형상이 갖는 의미일 것이다.

<參考文獻>

- 丁玲, <阿毛姑娘>, 《丁玲文集》 2권(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3.
_____, 《丁玲文集》 4-6권(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3~1984.
袁良駿編, 《丁玲研究資料》(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2.
김화영 편역, 《소설이란 무엇인가》(서울: 문학사상사), 1986.
宋建元, 《丁玲評傳》(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9.
莊鐘慶, 孫立川 整理, <丁玲同志答問錄>, 《新文學史料》, 1991.3.
楊義, 《中國現代小說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3.
鄒午蓉, 《丁玲創作論》,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4.
盛英 主編, 《二十世紀中國女性文學史·上》(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5.
김종진, <소설의 공간구조가 지닌 의미>, 《대구어문논총》 13집, 1995.
황도경, <소설공간과 ‘집’의 시학>, 《현대소설연구》 17집, 2002.
S. 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시학》(서울: 예림기획), 2003.
林丹姬, 《當代中國女性文學史論》(廈門: 廈門大學出版社), 2003.
王軼, <「阿毛姑娘」: 苦楚的文化悲劇>, 《河北師範大學學報》, 2004.3.
陳智慧, <欲望之花的凋落—「阿毛姑娘」解讀>, 《湘南學院學報》, 2005. 1.
翟永明, 高小弘, <城鄉抉擇的焦慮及其想象性解決—丁玲「阿毛姑娘」再解讀>, 《貴州師範大學學報》, 2005.5.

<中文提要>

本論文是通過關注都市和農村這兩個空間, 對<阿毛姑娘>重新進行了分

析。焦點放在隨著空間的轉移而阿毛所發生的內心變化，考察了作為鄉村婦女的她所帶有的非典型性，以及她的欲望和幻想。阿毛的‘幻想’表達了她對都市的追求，這不是指關於都市這一具體生活空間的追求，而是對比現在更好的生活的期望。從這方面看，可以說阿毛是丁玲通過傾聽無知和純真女性的希望和欲望後所塑造的形象。因此，阿毛擺脫了對於1920年代啓蒙知識分子的農村想象，形成了與其他農村婦女形象所沒有的她自己的獨特性。

阿毛在對都市認識上所表現出的突出特征又產生於敘述者的介入。由於敘述者的介入，阿毛這個小說人物與敘述者之間的距離幾乎消失，阿毛就表現出‘莎菲’型女性的姿態。丁玲通過阿毛表現出一個平凡女人的覺醒之前與覺醒過程以及之後的全景化，超越了覺醒女性生存的問題，還涉及到追求比現在更好的生活的人類所具有的普遍苦悶。從這一點來看，這部作品不止是單純的敘述了一個農村婦女關於物質方面的欲望和因此帶來的生活悲劇，在這裏所蘊含的作者的提問，不只是1920年末丁玲這一位女作家的苦悶，也是要走向‘都市’即近代化，但也要克服它所帶來的矛盾的‘5·4’知識分子的苦悶，同時也是正在急劇實現都市化的當代中國的苦悶。這就是對阿毛的幻想和欲望及她的死亡所蘊含的意義的重新思考的原因，也是阿毛這一‘假農民’形象所具有的意義。

주제어 : 都市, 農村, 空間想象, 欲望, 幻想, 非典型性, ‘莎菲’型農村婦女

